

한국 순수기초과학의 미래를 위해 고등과학원에 바라다!



먼저 존경하는 명효철 원장님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1996년 10월 기초과학 연구를 선도할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과학원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 창의적 과제 중심의 연구, 글로벌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생명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실공히 국제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연구의 양보다는 질에 역점을 둔 설립 멤버들의 기관 운영에 대한 소신과 원칙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고등과학원은 20여 명의 교수진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박사후 연구원들과 180여 명의 국내외 방문연구진들이 순수이론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연구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과학원은 그동안 다져온 국제적 입지를 기반으로 기초과학계 전반을 적극 지원해옴으로써 서울이 2014년 국제수학자대회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내는 데 공헌한 숨은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각고의 훈련과 노력으로 값진 금메달을 획득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초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노벨상이나 필즈상 수상자가 배출되어 과학 선진국 진입의 희망을 안겨주기를 모두가 염원하는 지금 그 영광의 날을 이루는 데는 고등과학원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양이 확실하게 다져져야만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한국 기초과학의 지평을 다져온 고등과학원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와 혁신으로 더욱더 영향력있는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등과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IAS](http://www.kias.ac.kr)

2010년 3월

대한수학회회장 김도한